보도자료 ★ 11월 13일(금)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AI)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기관명	경남자영고등학교	학교(기관)장	정화영
배포일자	2026. 11. 13.	담 당 자	교사 박주연(855-0223)
붙 임	사진(○), 영상(×)		

경남자영고, 배움의 문 활짝

화훼장식 · 지게차 운전 · 식육처리… 지역민 40명 대상 무료 실무 교육

경남자영고등학교는 경상남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전문 실습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화훼장식 과정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번 프로그램은 12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성화고가 갖춘 실습시설과 교육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는 일상에 활용할 기술을 배우려는 수강생부터 직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려는 수강생까지, 서로 다른 배움의 목적에 맞춰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화훼장식 실무교육 19명, 지게차 운전 실무교육 11명, 식육처리 실무교육 10명이 참여하며, 세 과정 모두 무료다.

화훼장식 과정에서는 꽃과 소재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는 장비의 기본 조작법을 배운 뒤 직접 운전한다. 식육처리 과정에서는 돼지고기의 부위별 구조를 살펴보고 발골과 정형, 소시지 제조 기술을 익힌다. 각 과정은 강사의 설명과 시범에 이어 수강생이 직접 작업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실습에 앞서 과정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는 장비 조작과 운전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식육처리 과정에서는 보호구 착용법과 칼 사용법, 작업 중 위생수칙을 안내한다. 교육은 재학생의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평일 방과 후와 주말에 진행하며, 프로그램 운영에는 재학생 9명도 참여해 수강생을 실습실로 안내하고 실습 준비와 정리를 돕는다.

식육처리 과정에 참여한 김○○씨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식육처리 작업을 학교 실습실에서 직접 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강생들도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을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익힐 수 있다는 점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경남자영고등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이 가까운 학교에서 자신의 관심과 목적에 맞는 실무 기술을 배울 기회를 넓히고, 학교의 전문 실습시설을 지역사회의 배움터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설명]





① 화훼장식 과정 수강생들이 꽃과 소재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② 지게차 운전 과정 수강생이 강사의 지도 아래 지게차 조작과 운전 기술을 익히고 있다.



③ 식육처리 과정 수강생들이 강사의 돼지고기 발골 시범을 보며 부위별 손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자영고등학교 ☎855-0223)